

이덕일의 역사의 창



과거제와 음서제

고려와 조선에는 음서제(蔭祿制)가 있었다. 고려는 5품 이상, 조선은 2품 이상 벼슬아치들의 자제들에게 과거를 보지 않고 벼슬에 진출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이다. 문벌(門閥) 덕분에 얻은 벼슬이란 뜻에서 문음(門蔭)이라고도 했다. 원래는 한 명만 받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두 명 이상이 혜택을 누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음서로 채용되는 관리를 음관(蔭官), 또는 남행관(南行官), 때로는 백골남행관(白骨南行官)이라고도 불렀다. 남행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다. 국왕은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며 정사를 하는 남면(南面)을 했다. 그 동쪽에는 문신들이 문반, 서쪽에는 무신들이 무반이 있는데, 음직은 남쪽에 서서 복향하는 자리라는 뜻이다. 실제로 음관들이 남쪽에 따로 선 것은 아니었지만 과거에 급제하지 않고 백골(白骨), 즉 조상 덕에 벼하는 사람들을 분류하기 위한 용어였다.

조선 후기 유수원(柳壽源:1694-1755)은 '우서(迂書)의 '문벌의 폐해

를 논한다' (論門閥之弊)에서 음서제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무릇 천하와 국가를 위하는 데는 다만 인재가 어진가 불초한가만을 물어야 하는데, 지금은 먼저 문벌을 따지니 이것은 어떤 의리인가. 또한 옛날에 귀하게 여긴 것은 충신과 효자의 자손인데, 지금 귀하게 여기는 것은 조상의 관직과 문벌뿐이다." 이처럼 강한 개혁 성향을 지녔던 유수원은 영조 31년(1755)의 나누벽서 사건과 관련되어 노론에게 사형당했다.

그런데 문음으로 관직에 진출했어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여한은 남기 마련이었다. 순조 때 영의정까지 올랐던 남공철(南公職)은 정조 8년(1784) 문음으로 정9품 세마(洗馬)가 되었는데 정조 16년(1792) 식년문과에 응시해 급제한 것이 이를 말해 준다. 음보로 진출한 사람들은 집안이 왕성하기 때문에 과거급제자보다 더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때로는 송반(崇班) 즉 1품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

음서로 1품관까지 오른 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임금이 관리를 보내 조문하고 부의하는 조제(弔祭)를 내려 주지 않는 것이 예법이었다. 숙종 6년(1680) 종1품 숭정대부(崇政大夫) 성직(成職)이 만 94세로 사망했는데 예조판서는 "음보로서 송반에 이른 자는 조제를 거행하지 않습니다만 성직은 여러 차례 판부사(判府事)에 임명되었으니 은전(恩典)을 내려야 마땅합니다"라고 상주했다. 숙종 또한 나이가 100세에 가깝고 1품까지 올랐으면서 특별히 조제와 부의를 거행하게 했다. 일종의 특전(特典)을 내려 준 것이다.

지금 조국 법무부장관 딸과 나경원 의원 아들-딸들의 입시 관련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은 일종의 현대판 음서제에 대한 문제 제기다. 대학입시뿐만 아니라 어 느덧 우리 사회에서 음서제는 더욱 왕성해졌다. 로스쿨도 그렇고 의학전문대학원도 그렇고 외교 전문 분야 전형도 그렇다. 이런저런 명분을 내걸고 출발했지만 실제로 합격된 사람들 중 일부는 본인이

아닌 부모 능력순이라는 의혹의 눈초리가 따갑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로스쿨 출신 중에 판검사에 임용된 인물들의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런 의혹이 일부라도 사실로 판명 날 경우 그렇잖아도 신뢰도가 낮은 이 나라 사법 체제에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 의전원의 경우도 그 부모가 의대 교수인 경우가 많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러한 연줄이 큰 힘을 발휘하는 우리 사회의 경우 대학 진학을 비롯한 모든 시험은 음서제를 전면 폐지하고 과거제로 가는 것이 맞다.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로 가는 대신 가난하거나 농어촌에서나 고 자란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맞다. 로스쿨 대신에 사법시험을 부활하는 것이 맞고, 의대 출신들이 인턴-레지던트를 거쳐 의사가 되는 것이 맞다. 부패가 극심한 우리 사회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다른 문을 만들어 놓으면 모나모나 권력과 자본이 있는 자들의 자녀를 위한 문이 되게 되어 있다.

기고

호남 발전 이끌 대안 정치 세력 필요하다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1995년 당시 김대중 총재님의 부름을 받아 정치를 시작한 나는 수도권에 터를 잡아 정치 개혁에 매진했다. 안이하게도, 나는 나라를 바로 세운다면 광주와 호남이 겪고 있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후보가 경선에 나왔을 때 영남 출신인 그 분을 나 홀로 앞장서서 밀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호남의 압도적 지지에 힘입은 수평적 정권 교체 이후 두 번의 민주 정부가 수립됐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 소득은 세계 사상 유례가 없는 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극단적인 양당제 싸움판 정치로 전락해 있다. 상대 세력만 꺾으면 집권할 수 있는 기득권 양당은 극한 대립을 통해 각자의

지지세를 결집하는 '적대적 공존' 관계에 있다.

이들이 승자 독식을 위해 싸움에만 몰두하는 동안,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민생은 나뒹개져지며 이 나라의 미래는 어두워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이 시효를 다하여 주력 산업들이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많은 국민들을 경제적 무능력자로 전락시킬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불확실성도 발등의 불이다. 하지만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준비는 실종돼 있다. 촛불 국민 혁명도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단 한 건의 개혁 입법도 완수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기득권 양당 체제 하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이다.

이런 비생산적인 정치를 끝내기 위해 나는 오래전부터 다당제·합의제 민주주의의 가이안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호소해왔다. 세 개 이상의 정당이 정립해 있는 다당제 하에서는 어느 정당도 승자 독식을 할 수 없기에 상상과 협력의 생산적 정치가 실현될 가능성이 커진다.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 수준이 높고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의 절대 다수가 다당제·합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광주와 호남에는 반드시 제3의 대안 세력이 필요하다. 오랜 일당 독점으로 인해 호남 정치는 극도의 무기력에 빠져있고, 호남에 대한 정치적 차별과 경제적 낙후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 경북의 '구미형 일자리'에 LG화학이 5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울산형 일자리에도 현대모비스가 3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한다. 광주형 일자리에 현대차가 투자하는 금액은 437억 원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호남의 낙후 상태가 개선되기는커녕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호남 지역 발전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강력한 의지를 지닌 대안 정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광주와 호남을 필두로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국민의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3당 체제를 만들어주었다. 문재인 정부가 호남에 각별히 신경을 쓴 데에는 경쟁 관계에 있는 국민의당의 존재도 한몫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나후 포

함한 국민의당 정치인들은 이러한 성원에게 부응하지 못하고 흩어지고 말았다. 이점에 대해 나는, 특히 광주와 호남의 주민들께 깊이 사죄를 드린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대안 정치 세력은 다음과 같은 목표와 임무를 설정하고 그 실현에 매진하고자 한다.

첫째, 전국 차원에서 기득권 양당의 싸움판 정치를 극복하고 다당제·합의제 민주주의의 한 축이 될 유능하고 개혁적인 제3 세력이 되고자 한다. 둘째,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세력이 다시 이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는 데에 민주당과 흔쾌히 연대·협력하고자 한다. 셋째, 촛불 혁명이 명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한번 채찍질하고 한번 협력을 아끼지 않으므로써 개혁을 완수하고자 한다. 넷째, 무기력한 호남의 1당 독점을 극복하고 강력한 정치적 경쟁 체제를 구축하며 확고한 의지와 비전·정책으로 낙후된 호남의 발전을 이끌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룩하고자 한다. 이상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개혁을 이끌어 온 광주와 호남에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기도 할 것이다.

의료칼럼

중풍(뇌졸중)을 대하는 자세



김정민 동행재활요양병원 재활의학과 원장

중풍(뇌졸중)은 2018년 통계청 기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3위로 암, 심장 질환 다음으로 흔한 병이다. 중풍 증상을 검색해 보면 손·발 저림, 눈 떨림, 뒷목 뻣뻣함 등이 있어 두통이나 저린 감이 발생하면 중풍이 아닌지 걱정하는 이들이 상당수다.

두통이나 저린 감 등의 몇 가지 증상들은 중풍이 아닌 다른 질환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증상만으로 중풍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의식의 저하, 멈추지 않는 두통, 말의 어눌함, 손발의 마비 증상은 중풍을 예측하는 지표이며, 이런 증상이 보이면 곧바로 병원을 가는 것이 좋다. 고혈압, 음주, 흡연, 당뇨 등이 중풍 유발 위험 인자로 밝혀졌으며 고혈압·흡연은 혈관의 탄력성을 떨어트려 중풍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도 위험요소이다. 가족 중에 중풍이 발생하면 당사자의

이 악화되기도 한다. 중풍은 증상이 나타나면 약물을 사용하더라도 증상이 더 나빠지기도 하는데, 이는 산소 공급이안되면서 주변 조직에 넓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의식이 있었는데 오히려 상태가 나빠져 중환자실에서 인공 호흡기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넘기면 비로소 재활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가족을 알아보고 대화하며,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끊임 없는 치료와 훈련이 필요하다. 이후 해야 할 일은 꾸준한 몸 관리와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 마지막으로 병원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대학병원의 경우 재활 치료를 위한 입원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급하게 다음 병원을 알아보게 된다. 이때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병원을 추천한다.

간혹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재활 치료가 가능하다고 소개하는 병원이 있지만 나라에서 인정하는 치료(예를 들어 중추신경계 발달 치료, 전기적 자극 치료, 작업 치료, 언어 치료 등)는 재활의학과에서 처방이 되는 치료이다. 그래서 비용 대비 중풍 개선 목적으로 많은 치료를 받으려면 재활의학과가 있는 병원으로 입원하는 것이 좋

다. 중풍의 위치에 따라 실어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언어 치료실이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초창기의 치료의 방향이 마비 쪽의 근력 회복에 있다면, 중증기로 넘어갈수록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적 수행과 기능 개선에 맞춰지게 된다. 또한 만성기에 이르르면 체중 부하의 어려움에 따른 골밀도의 감소로 낙상 시 골절의 위험성이 높아 지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기술여야 한다.

치매 증상이 중풍 발생 후 보일 수 있으며, 증상 개선을 위해 약물 복용뿐만 아니라 옛날 사진, 즐거웠던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만성기에서의 재활 방향은 현재 수행 가능한 동작들이 꾸준히 유지되도록 관절의 가동 범위를 확보하는 것에 있다. 하루하루 발전하는 의료 기술은 과거에 해결하지 못했던 질병을 정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풍을 치료할 약물이나 수술 방법이 개발됐을 때 내 몸이 이것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 절주, 스트레스의 적절한 해소가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社說

확산 우려 돼지열병 방역예산 지원 서둘러야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전남도가 북한에서 돼지열병이 발병한 지난 5월 말 이후 야생 멧돼지의 농가 유입을 막기 위한 울타리 설치 예산 지원을 여태껏 미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 도내 22개 시군 580개 양돈 농가에 울타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14억 원의 예산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북한 지역 야생 멧돼지가 이동하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정부는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남 지역 양돈 농가의 울타리 설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는 당초 농림축산식품부가 경기·강원·인천 등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남도 역시 정부의 지원 계획만 믿고 예비비 투입을 늦추

면서 지역 양돈 농가의 울타리 설치 사업은 아직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옛그제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뒤해야 부랴부랴 관련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하지만 농장 지원 탓에 전남도가 정부 예산을 받아 시군을 통해 내려 주더라도 해당 농가가 울타리를 설치하기까지는 1주일 이상 걸린다고 한다. '뒷방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져 양돈 농가에 비상이 걸렸음에도 유력 전파원인 야생 멧돼지 차단을 위한 예산 지원을 미룬 것은 안이한 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남의 돼지 사육 규모는 전국의 10%에 달하고 농가 한 곳이라도 뚫리면 견잡을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차단 방역을 위한 신속한 예산 지원과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5·18사적지 옛 광주 적십자병원 적극 보존을

5·18 민주화운동 주요 사적지 가운데 하나인 옛 광주 적십자병원 건물이 민간에 매각될 위기에 처했다. 소유권을 가진 서남학원재단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재산 매각 승인을 받아 조만간 공개입찰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 이홍일 의원(민주·동구 1)은 그제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에 보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옛 광주 적십자병원(1998년 사적지 11호 지정)은 5·18사적지 29곳 중 그 어느 곳보다 역사적 상징성을 갖는다. 도청 앞 집단 발표로 인한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이 이뤄진 곳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개봉한 영화 '택시 운전사'(감독 장훈)에서도 이러한 시민들의 행동이 생생하게 묘사됐다. 5·18 기념재단은 최근 낸 성명서에서 옛 적십자병원은 '광주 시민이 세계의 그 어느 나라 혁명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높은 도덕성으로 치안 부재의 상황에

서 피와 주먹밥을 나누고, 질서와 민주주의를 향한 신념을 지켰던 광주 시민공동체를 구현했던 현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곳은 지난 1995년 서남대 재단에 매각돼 의대 부속병원으로 활용돼 왔으나 재단 비리 등으로 2014년 문을 닫으면서 폐건물로 방치돼 왔다. 동구는 지난 6월에 옛 적십자병원을 어린이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구상을 밝힌 바 있으며 광주시와 동구가 매입을 검토했지만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옛 광주 적십자병원이 개인에게 매각되면 자치 원형을 잃기 쉬운 뿐만 아니라 사적지의 역사적 가치를 구현할 수 없게 된다. 내년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해다. 광주시가 옛 광주 적십자병원 건물 매입을 비롯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년째 흉물로 방치돼 온 이곳을 5·18의 대동 정신을 보여 주는 소중한 공간으로 되살려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일제강점기 전남은 전국 최고의 면화 생산지로 자리를 잡았다. 1920년대 중반부터 광주에 전남 도시제사 공장, 종연방직 광주·전남 공장, 약립제사 공장 등 3대 공장이 들어섰다. 1937년 발간된 '광주부세일반'에 따르면, 당시 이들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 3773명 중 3157명이 10~20대 초반의 어린 여공들이었다.

이들은 1년에 321~338일, 하루 15~16시간씩 일했다. 생산량을 채우지 못한 여공은 점심을 못 먹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1932년 10월 참다

생똥맛은 투쟁

전태일은 이들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으나 뜻이 관철되지 않자 결국 자신으로 저항했다. 이후 'YH무역 노동자 점거 농성 사건'이나 '용산 참사' 등 과거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사회적 약자들은 농성·단식·분신 등 자신의 몸을 무기로 걸고한 기득권과 폭력을 가장한 공권력 그리고 대중의 무관심에 맞서야만 했다.

한때 좀 생똥맛게도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련 반대 여론이 다소 높아지자, 보수 우익 여성 의원을 필두로 제1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의 등이 맹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매일 아침 처절한 함성을 질러 일본인 공장주의 노동 착취와 이를 감싸고도는 조선총독부 관료 및 경찰의 행태를 고발했다.

세월이 한참 흘러 1970년 11월 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봉제공으로 일하던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주장하며 자신의 몸을 불태워 열악한 노동 현실을 세상에 알렸다. 당시 봉제공장에 취직한 13~17세의 소녀들은 햇볕도 들지 않는 좁은 다락방에서 희미한 형광등 불빛에 의존해 하루 14시간씩 일했다.

/유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처 부 220-0632	여 론 채 부 220-0652	(FAX 222-0195)	(FAX 222-0195)
경 제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전 남 본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